

신중년 '신나는 100세' 꿈은 이루어진다

인생 2막 주인공 꿈꾸는 신중년

<1>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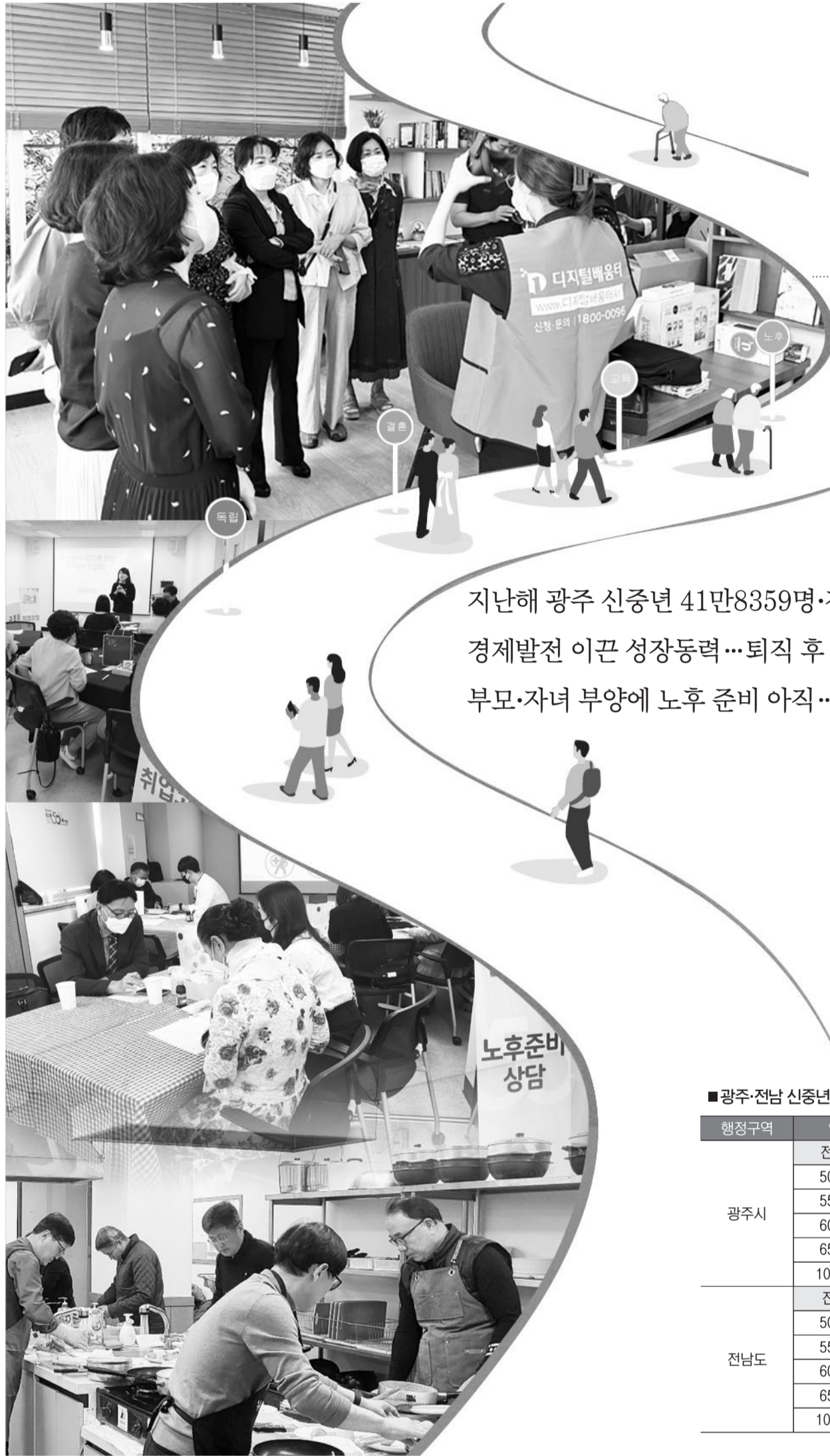
광주·전남 중장년층들도 이른바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19년 479명(광주135명, 전남 344명)에 불과하던 광주·전남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740명(광주182명, 전남 558명)에 달했다. 5년새 54.4%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방인구소멸로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중장년층의 고령화 비율이 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100세 시대라는 점에서 당연히 100세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인간생심(壽敬生心)일 뿐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광주·전남 중장년 층들은 60세 정년을 앞두고도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무엇을 해야할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길어진 삶의 시간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그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광주일보는 은퇴를 앞둔 광주·전남 중장년층들이 인생 2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과 성공사례를 알아본다.



지난해 광주 신중년 41만8359명·전남 60만8549명
경제발전 이끈 성장동력...퇴직 후 활발한 활동 꿈꾸
부모·자녀 부양에 노후 준비 아직...정책으로 지원을

5060 중장년층의 다른 이름은 '신중년' (50-69세)이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중년은 정부가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정책 대상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광주·전남의 신중년은 일이 곧 자신이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후기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6·25전쟁 후 세대지만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는 높은 학력과 오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 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했던 우리사회의 버팀목 세대이며 정년 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적극적인 세대로 지금의 노인 세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러한 신중년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신중년 인구 규모는 41만 8359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142만여명)의 29.45%를 차지했다. 5년전 2019년 광주지역 전체 인구의 26.09%(37만8020명)를 차지하던 신중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2019년 전남 전체 인구(186만여명)의 30.35%(56만5451명)를 차지하던 신중년이 지난해 33.68%(60만 8549명)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저조한 출산율,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 등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기술발달에 따른 기대 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고령자,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가려져 정책 대상에서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신중년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의 삶이 40년, 50년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등으로 퇴직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세대들이다.

신중년들은 평생토록 삶의 대부분을 한 직장에서 일하는 데 보내왔다.

신중년에게 퇴직은 예정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이로 인한 충격과 부정적 정서는 아쉬움과 당혹스러움부터 분노에 이르기까지 깊고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신을 위한 여가나 놀이를 충분히 즐겨보지 못한 대부분의 신중년은 퇴직 이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는 늘어난 수명만큼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준비와 아무런 대비책 없이 달려온 것이다.

신중년들의 대규모 퇴직이 현실화되며 신중년의 노후 대책 및 일자리 관련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장수는 이미 우리 곁에 당연한 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해야 그 길어진 삶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나 정년이라는 개념은 점차 흐려지고, 앞으로는 늘어난 수명만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대학 졸업 후 30여 년 열심히 일하고 애써 모으면, 은퇴 후 소소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택한 삶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지식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는 꼭 필요하며, 대비를 하지 못한 노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라는 것이다.

다수의 신중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hb@

■광주·전남 신중년과 100세 이상 인구 현황 (단위:명)

행정구역	연령별	2019	2020	2021	2022	2023
광주시	전체 인구	1,448,843	1,444,467	1,438,867	1,431,266	1,420,562
	50 - 54세	119,649	122,130	124,712	126,708	126,801
	55 - 59세	110,379	109,249	108,336	108,776	111,240
	60 - 64세	87,664	93,874	99,199	102,356	103,884
	65 - 69세	60,327	63,326	67,587	71,528	76,434
	100세 이상	135	145	157.5	164	182
전남도	전체인구	1,863,279	1,847,811	1,833,020	1,820,069	1,806,802
	50 - 54세	153,659	154,111	154,894	155,166	153,015
	55 - 59세	162,164	158,689	155,893	155,348	156,583
	60 - 64세	141,315	150,280	158,945	164,670	166,812
	65 - 69세	108,313	112,431	118,072	123,805	132,138
	100세 이상	344	376.5	424.5	489	558

(KOSIS 국가통계포털자료)

함께하는 100년 동행

광주일보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등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